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MariChre MariChre Shilaslamit)

사랑을 부르는 주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주문 ...

## [ 차례 ]

### 서문

#### Prologue

1. 코끼리 네리아의 죽음
  2. 솔브레로 언덕, 그리고 카사콘차 와인
  3. 21세기 아리카발전위원회
  4. 로드리게스 단장의 오류
  5. 클론 광장의 나팔소리
  6. 잊어버리거나 혹은 지워버리거나
  7. 위대한 마케터, 하나님
  8. 구스만씨와 비밀의 정원
  9. I can't smile without you
  10. 벽 앞의 기도
  11. 속삭이는 벽
  12. Start or St. Art
  13. Change all about Circus
  14. 보나파치오 시장의 결단
  15. Over the Rainbow
  16.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 에필로그

- 서문 -

##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하나님 주신 5가지 비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그 단 하나의 질문에 나는 커다란 망치로 뒷통수를 맞은 듯 했고, 이제껏 내가 해왔던 그 수많은 강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제껏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학교와 기업,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했던 나의 강연은 정말로 진실이었던가? 늘 기계적으로 최신의 이론과 사례들을 마치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진실일양 조잘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

오랜 기간 동안 마케팅과 홍보 일을 하면서 실전에서 배우고 익혔던 노하우를 강연했을 때 받았던 그 청중들의 박수 소리는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왔다. 늘 그분들에게 고마웠고, 또한 그들의 경청은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발단은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의 한 강연이었다. 탁트인 풍경과 고즈넉하게 풀을 뜯고 있는 말들과 양, 저만치 보이는 한라산의 자태는 도심을 오랜만에 벗어난 나를 들뜨게 만들고 있었다.

사실,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면서 간단한 의문이 들기는 했었다. 이날 강연의 참석자들은 평소의 일반 기업의 마케터나 학생 또는 기업인들이 아니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강좌였던 것이다. 왜 이 분들에게 마케팅에 대한 강연을 해 달라고 한 것일까?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다보니 점점 차창밖 풍경은 멀어져 가고 있었다.

교육장에 도착해 평소와 다름없이 마케팅의 트렌드와 실사례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강연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다음은 ‘의례적인’ Q&A의 시간이었다. 손을 번쩍 든 그 질문자는 나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저는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 기업들이나 가능한 이야기들이겠네요.. 그것도 예산과 인적 자원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일반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영세한 기업인들이 활용할 마케팅 성공 비밀은 없는 건지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것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지요?”

온 몸에 힘이 짝 빠져버린 나는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실없는 답변을 하고 강연장을 빠져 나왔을 뿐이었다.

다시 한번 나의 고민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었다. 결국 새로운 답은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순화된 성공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 필립 코틀러, 잭 웰치, 제프리 무어, 마이클 포터 같은 구루(Guru)들의 방법론을 적용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가?

- 현재까지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이론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 한단 말인가?
- 그럼 앞으로도 미디어가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소비자가 변하면 또 새로운 이론들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 성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예산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란스럽기만 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머리속에 화두만을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즈음해서 우연히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지난 몇 달간 풀지 못했던 답들이 마치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마케팅 활동으로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마케팅의 성공 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이 책은 성공이 간절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조직이 크거나 작거나, 개인이거나 기업이거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읽고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활용서’라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마케팅의 비밀’은 총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장로(오피니언 리더)들을 선발하라. 그들이 곧 미디어다
- 둘째, 예수를 발견하라
- 셋째, 기도를 슬기롭게 들어라
- 넷째,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는 커뮤니티이다
- 다섯째, 성경을 확산시켜라

이 책의 구성은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자신의 위기를 위의 다섯가지 비밀에 의해서 헤쳐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하나님 마케팅 비밀 5가지 요약을 음미해 본후 다시 한 번 본문을 읽어 보길 바란다. 또한 마케팅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 하필 ‘하나님의 마케팅’ 방법이냐는 말이다. 최신 경영과 마케팅 기법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나오고 있으며 여기에 리더쉽, 인재 및 조직관리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하나님 마케팅’을 들먹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윌리엄 오하라(William T. O'Hara)가 저술한 '세기의 성공(Centuries of Success : Lessons from the World's Most Enduring Family Businesses)'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업은 578년 백제인이 일본에 세운 '곤고구미(金剛組)'라는 건설회사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20세기 대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약 75년 정도일 뿐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최신’ 기법은 언제나 잘 버려진 칼 처럼 유용할 것 같고, 그 막강한 위력은 기업에게 끝없

는 생명을 불어넣을 것 같은데 말이다.

기업 경영과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최신이나,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것일 수록 오히려 더 검증된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려 2000년간 검증 받아왔다. 전 세계 수억명의 인구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있다는 것은 그 방법이 얼마나 막대한 성공을 거뒀는지 이미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검증된 ‘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음미하고, 응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기업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다.

2008, 가을. 구자룡

## 등장인물

### ▶ 단장 로드리게스

<오드아이 서커스단>을 이끌어 가는 리더지만 기존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늘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성격. 신앙심이 투철해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서커스단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단원들에게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데….

### ▶ 마술사 알바노

똑똑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마술사. 신학과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 위기에 처한 서커스단을 변화시킬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다. 그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5개의 프랑 동전을 습관처럼 가지고 다닌다. 과연 그는 진정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서커스단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 ▶ 다큐멘터리 작가 페레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백전 노장 다큐멘터리 작가. 날카로운 취재력과 뛰어난 글솜씨로 ‘올해의 다큐멘터리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아이템을 찾던 중 아리카시와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이야기가 그에게 포착된다.

### ▶ 아리카시(市) 시장 보나파치오

영국에서 MBA를 공부하고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다가 아리카시로 와서 시장에 당선됐다. 미래도시의 비전을 꽤 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보수적인 원로인사들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던 중 서커스단으로부터 놀라운 기획안을 받게 되는데….

### ▶ 회원주인 구스만

‘매일 매일 바뀌는 간판’이라는 재미있는 발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는 회원주인. 자신의 프로포즈를 위해 마술을 배워나가던 중 서커스단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영똥하면서도 색다른 제안을 하게 된다.

### ▶ <21세기 발전 위원회> 회장 로하스

아리카시의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켜왔던 1세대 사회지도층 인사. 이제는 노년이 되었지만 자신의 세대가 이뤄왔던 성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완고한 성격이다. 그러서인지 ‘말만 앞세우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못마땅해한다. 보나파치오 시장이 추진하는 ‘딴따라 도시’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Prologue

산티아고에 있는 신문사 <라 쿠알타> 편집국에 들어간 이브라힘 페레는 후배들에게 인사 받기에 바빴습니다. 오랜 만이었던지, 예전에는 지긋 지긋하던 편집국 풍경도 그에게는 새롭고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선후배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건넸습니다.

“어이 페레,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작가상 수상 때 받은 상금으로 한 톱 내리 온 건가? 난 시간은 많다고.”

“와, 기자 그만두시더니 얼굴이 다 흰해지셨네요. 선배님, 설마 다시 입사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하하. 저희 신문사는 아무리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님이라도 많은 월급을 드릴 수 없대구요.”

하지만 정작 페레가 찾는 사람은 절친한 후배였던 카를로스였습니다.

“드디어, 아이템 하나 잡으신건가요? 자,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현직 기자시절부터 단짝이 되어 취재를 해왔던 후배 카를로스는 여전히 밝고 장난기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페레가 카를로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드 아이 서커스단!”

“아!”

페레가 얇은 미소를 띠었습니다.

“자네가 쓴 기사를 봤지. 그게 바로 나의 다음 다큐멘터리 아이টে이라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보게. 기사에 안 쓴 것 까지 모조리 말아야.”

카를로스가 턱을 어루만지며 눈꼬리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흠 ... 선배님, 그건 말이죠 ...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재림이라도 하셨단 말인가?”

“하하. 설마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드아이 서커스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말이죠.”

페레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 1. 코끼리 네리아의 죽음

“단장님, 네리아가 죽었습니다.”

마르께스는 침통한 얼굴로 네리아의 사망소식을 전했습니다. 네리아는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코끼리였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은 네리아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의 주위에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지난 공연의 홍보포스터와 티켓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코끼리 쇼도 보여줄 수 없게 됐군.”

오드아이 서커스단에는 새로 코끼리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단장뿐 아니라 단원들 모두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르께스는 축 쳐진 단장의 어깨를 보며 남몰래 한숨을 지었습니다.

‘단장님, 우리는 코끼리 쇼만 보여줄 수 없는 게 아닌지도 몰라요. 얼마 안가 서커스단을 해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현재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문제는 코끼리 쇼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객의 외면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커스를 보러오지 않았다. TV, 영화, 게임 등 서커스보다 자극적인 재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열 명 남짓한 관객만 두고 공연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단원들은 괜찮은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로드리게스 단장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10년 이상을 단원들과 함께 공연하며 숨 쉬어 온 네리아였습니다. 네리아의 죽음은 단원들에게 단순한 코끼리의 죽음이 아니라 동료 단원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겠지. 나도 슬프니까. 마르케스, 대체 이놈의 서커스라는 게 뭘까? 내가 아는 서커스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는 거야. 서커스를 보다보면 사람들은 슬픈 생각도 삶의 고달픔도 잠시 잊고 웃게 되지. 그 모습을 보다보면 서커스를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지. 그런데 이상하지. 분명 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서커스를 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만 슬퍼질까? 이젠 서커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일까?”

로드리게스 단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코끼리 네리아를 화장시킨 다음 날, 네리아를 사육하던 몬타나마저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몬타나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모두와 함께 다시 한 번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이라도 한번만 더, 뜨거운 태양과 바람, 바다와 사막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그곳의 열정을 담은 까사콘차를 함께 마실 수 있다면......’

로드리게스 단장은 꿈꾸듯 마음의 고향인 아리카를 떠올렸습니다. 오드아이 서커스단을 환호하는 아리카의 사람들과 단원들의 웃음을 상상했습니다. 상상속의 오드아이 서커스단은 망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마법사였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던 로드리게스 단장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래, 아리카로 가자. 그 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 2. 솔브레로 언덕, 그리고 카사콘차 와인

페레가 2시간에 걸쳐 콜렉티보(Colectivo)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아리카시였습니다. 콜렉티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타는 택시이기 때문에 페레가 사전 취재를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혹시 오드 아이 서커스단이라는 곳을 아세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거기에 뭘 볼 일 있으세요? 기자신가? 요즘 신문 방송에 자주 나와서...”

“오드아이는 에리카시의 구원투수였죠.”

택시 기사가 나선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오드 아이 서커스단의 단장이라도 된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서커스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택시 기사를 그만뒀어야 할지도 모른다구요. 관광객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예전에는 거기에 공장 밖에 더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택시를 타고 다닐리는 만무하고, 여하튼 오드아이

서커스단은 아까 어떤 분 말처럼 아리카시를 살리는 구원투수였다구요.”

오드아이는 이미 아리카시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페레를 향해 택시 기사가 다시 한 번 외쳤습니다.

“이곳 아리카를 즐기세요!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 밋!”

페레는 환한 표정을 지어보였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마리크레? 실라....밋?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날 저녁, 페레는 ‘진짜 오드아이 서커스 단장’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권해준 와인은 마치 태평양의 속삼임처럼 강렬하게 혹은 부드럽게 목구멍을 타고 가슴을 적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까사콘차를 마시는 것이었지. 100%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거지. 싸고 맛있고. 이걸 축복이야.”

페레는 로드리게즈 단장이 따라준 와인의 향기를 음미하며 질어가는 남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 페레의 모습을 보며 단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네리아를 화장시키고 한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네. 네리아를 사육하던 몬타나는 이튿날 말도 없이 떠나가고 몇 안되는 관객들마저 거의 끊어져 버렸다네. 네리아의 죽음은 우리 서커스단의 쇠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네. 페레, 아니, 페레라고 불러도 괜찮겠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자네, 서커스의 꽃이 뭐지 아나?”

“글쎄요. 공중그네? 아니면 뼈에로의 묘기?”

“아니야. 아니야. 서커스의 꽃은 관객들의 박수와 웃음소리지. 관객들의 웃음과 박수가 천막을 찢어버릴 듯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비로소 눈물이 흐르지. 그 순간이 바로 서커스의 꽃이 피는 순간이네.”

단장은 다시 와인을 따르며 알바노에게 건배의 포즈를 취했습니다. 알바노는 저만큼 떨어져 앉아있었지만 가볍게 웃으며 단장의 동작에 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우리는 꽃이 꺾여버린 거야.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지. 서커스단을 해체해 버릴까 생각도 하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태평양, 와인, 사막, 바람... 여기 아리카였네. 전부 잃었다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 내 사랑이 있던 곳에서 마무리를 짓자고 말이지. 다시 성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 그렇게 여기로 온 걸세. 그리고 알바노를 만났지.”

“그럼 알바노는 여기 사람인가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알바노가 페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장은 알바노에게 무언가 말을 하라는 듯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바노는 그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전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리카로 돌아온 건 이곳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해왔던 곳이지만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아리카도 바꾸어 놓았지만, 아리카에 대한 저의 기억과 추억마저 바뀌버렸죠. 제가 단장님을 만난 건 산마르코(San Marco) 교회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마침 교회 앞 벤치에 앉아있었죠. 아름다운 네루다(Neruda)의 시에서 뭔가 마술에 대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게서 빵을 맛아가도 좋다. 그대가 원한다면, / 내게서 공기를 맛아가도 좋다. 하지만 / 내게서 그대의 미소만은 맛가지 말아다오.

마술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행복과 웃음, 미소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저는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소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남자가 교회로 오고 있었죠.”

“그게 바로 나였지. 그래 내 첫 인상은 어땠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답한 영감 같았죠.”

페레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쿡쿡대며 웃었습니다.

“서커스의 꽃이군!”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온 페레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왜 가신 건가요?”

“기도를 하러 갔었지. 힘들 땐 누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의 등을 두드려줄 위로가 필요했으니까. 나중에 그 교회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는 커다란 역할을 했지. 아무튼 나는 여기 아리카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네. 물론 그 시작은 여전히 험난한 가시밭길이었고 나는 그 가시밭길이 무척이나 익숙한 길이었지.”

알바노가 또다시 동전 몇 개를 꺼내 만지작거리더니 하늘로 퐁, 퐁 후 다시 재빠르게 다른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잠시 후에 교회로 들어갔고, 단장님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장은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까사곤차와 함께 아리카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장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3. 21세기 아리카발전위원회

보나파치오 시장은 방금 시의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책상에 던진 보나파치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의 고민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볼리비아와의 전쟁으로 칠레의 영토가 된 아리카는 칠레 북부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인해 아리카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삭막하기만 했습니다. 보나파치오는 영국에서 MBA를 공부하고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한동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후 아리카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주축이 된 ‘아리카발전위원회’ 라는 단체가 공업을 이용한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발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리카 시는 지금 여론이 나뉘어져 오히려 갈등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나의 계획에 많은 시민들이 따라와 줄 텐데 말이야.”

보나파치오 시장은 여러 서류들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결재를 받으러 온 비서실장 레들레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시민들이 시장님의 마음을 읽어줄 겁니다.”

결재를 받고 나가려던 레돌레스가 무언가 생각난 듯이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시장님. 서커스 좋아하세요? 서커스단 단장인데... 이름이 뭐더라... 아, 로드리게스. 부지 사용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솔브레로 언덕에 천막을 치려는 가 봅니다.”

“서커스단? 서커스단이라... 단장, 단장은 어디 있나?”

“아마 지금쯤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서 내일이면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단장을 나에게 불러 주겠나?”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

로드리게스 단장은 조금 전에 시장이 한 말을 속으로 다시 되뇌이며 깍지 낀 자신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 동안 부지의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아무런 조건도 없단 말이 지.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보나파치오 시장은 생각에 잠긴 단장을 보다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현재 아리카시는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저는 시장으로서 그런 시민들의 고통을 풀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흥겨운 공연을 본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아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로드리게스 단장님에게도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곳 아리카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 서커스단 광고를 내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시정방송을 이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지역케이블 광고는 무리겠지만 지역 뉴스에 서커스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간접광고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장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단장은 그 길로 시청을 나와 서커스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장이 돌아간 후 시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아니, 드디어 시작인거지.’

#### 4. 로드리게스 단장의 오류

로드리게스 단장은 단원들을 재촉했습니다.

“자, 빨리 빨리들 하자고. 이제 우리 이곳에서는 꼭 성공을 해야 한단 말이야.”

분주하게 움직이던 서커스단원들이 하나 둘 단장의 천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단장은 서커스단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우르슬라에게 단원들이 먹을 양파스프와 마늘빵을 나눠주도록 시켰습니다. 단원들은 빙 둘러앉아 스프와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말

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예상치 않게 서커스 부지도 공짜로 생기고, 에리카 시에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고 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바이네. 부디 당부하건데, 오늘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제 과거는 모두 있고 다시 한 번 힘차게 해보는 거야.” 하지만 단원들의 얼굴은 특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끼리 네리아의 죽음과 지난 도시에서의 공연 실패에 대한 우울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장은 단원들을 쪽 훑어보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리카 시를 깜짝 놀라해 해보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웃음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거든. 요란하고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서커스의 능력을 한껏 보여주잔 말이야.”

브리앙이 원숭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충분히 시끄러웠지만 반응은 신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화려하게 하자는 거야. 우리는 두 개조로 나뉘어 아리카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9월 18일 거리(18 de Septiembre)’ 와 ‘5월 1일 거리(21 de Mayo)’ 를 휘젓고 클론 광장으로 모인다. 물론 포스터를 부치는 조는 아리카의 유명한 장소 리세라카 해변이나 비꾸냐 마켄나 공원, 아리카 카지노까지 포스터를 붙이고 브로셔를 돌린다. 그리고 브리앙 년 원숭이 짐을 데리고 아이들 시선을 확 잡아끌려고 노력해 봐. 저번처럼 아이들이 원숭이에게 돌을 던졌다고 화 내지 말고.”

“그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도 필요하단다. 그리고 그때 네가 아이들에게 짐을 줌 만지게 해줬더라면 그런 일도 없을 거야. 자, 준비 됐으면 출발이다. 클론 광장에서 만나는 거다. 알았나?”

사실, 이 방법은 저번 도시에서 공연할 때 써먹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손님이 많이 모인 걸로 기억하는 단장이 또 써먹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휴일이었고 마침 그 도시의 광장에 베흘시장이 열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단장의 방법이 먹혔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 하지만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모였으면 그만이니깐요. 내일은 휴일도 아니고 아침 일찍 광장에 사람들이 모일 이유도 없었지만 단원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든 아리카 시를 한 바퀴 돌기는 해야겠고 그렇게 도나 이렇게 도나 별다른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어차피 서커스를 보러 올 손님이면 어렵히 알아서 오겠지 뭐. 이것이 단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단장도 대단해.”

“뭐가?”

“그 멋진 계획 말야. 설마 그걸 정말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단장은 믿고 있는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걸까?”

“아니, 그건 아니지.”

“근데 왜 멋진 계획이라는 게 맨날 저런 거야?”

발데스가 단장의 천막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단장도 알아. 하지만 그것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알기만 할 뿐이지. 방법이 없는 거지.”

브리앙은 원숭이를 데리고 천막으로 돌아가며 다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과 해결하는 건 분명 다른 문제야.”

## 5. 클론 광장의 나팔소리

요란한 경적소리, 빨 나팔 소리가 울리고 대 여섯 명의 외발자전거 군단이 광장의 분수대쪽으로 재주를 부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서커스단! 인간이 부릴 수 있는 묘기의 한계를 들고 이 곳 아리카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 감동의 기억을 선물할 오드아이(Odd Eye) 서커스단! 한명이 보기엔 섭섭하고 둘이 보기에는 부족하지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모두 모두 손을 잡고 오십시오!”

빠에로 분장을 멋들어지게 한 소년 미구엘은 공중제비를 넘으며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모든 사람들에게 붉은 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서커스단 브로셔를 나눠 주었습니다.

미구엘은 가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원통 한 무더기를 꺼내 약 1m 간격으로 바닥에 죽 늘어 놓았습니다. 미구엘의 걸음으로 크게 한 걸음을 걸으면 대충 1m가 나오는데 사실, 그건 그닥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드아이(Odd Eye) 서커스단입니다. 자, 우리 서커스단의 멋쟁이 군단 외발자전거 동료들이 바닥에 놓인 20개의 원통사이를 지금부터 누비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 그게 서커스겠습니까? 외발 자전거팀의 대장, 캡틴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빠에로를 목마를 태우고 달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원통이 쓰러진다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를 무료로 저희 공연장에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터지자 발테스는 과장된 동작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미구엘은 얼른 외발 자전거 팀의 맨 뒤로 달려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구엘, 어서 올라와.”

미구엘은 발테스의 손을 구름판 삼아 어깨 위로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발테스, 나 머리위에 사과를 올릴게요. 자신 있죠?”

“뭐라구? 뭘 올려?”

“아니에요. 얼른 가자구요. 우리 차례예요.”

다섯 대의 외발자전거가 좁은 원통사이를 요리조리 미끄러지는 모습은 마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중으로 탄 발테스의 외발자전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구엘의 머리위에 있는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원통을 다 빠져나오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소리가 끝날 때 째 말을 타고 어깨에 원숭이를 올린 브리앙과 노새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우산을 쓴 우르슬라가 새끼곰, 앵무새, 비단구렁이 등 동물식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의 요란한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곧이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단장인 로드리게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서커스단은 이곳 아리카를 방문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커스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솔브레로 언덕 아래에 있는 공터에서 저녁 7시 화려하고 역사적인 10주년 기념공연이 막을 올릴 예정이니 신사 숙녀 여러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의 길고 지루한 인사가 끝나자마자 단원들은 약속된 행동으로 모두 함성을 지르고 사람

들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익살을 떨고 재주를 부리고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붉은 브로셔를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요” 라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단장은 사람들과 단원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커스단원들의 한바탕 시끌벅적한 홍보가 끝나자 다시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브로셔는 땅에 굴러 떨어져 바닥에 흩날리고 있었고, 심지어 새 브로셔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구엘은 그런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단장은 이럴 때마다 ‘브로셔의 용도라는 게 다 그런 거야. 한번 보고 버리는 거, 그게 브로셔인 거지. 브로셔를 집으로 가져가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할 사람은 없지 않나’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소모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미구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브로셔들을 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은 브로셔가 잔뜩 들려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하나.

“ 장로(오피니언 리더)들을 선발하라. 그들이 곧 미디어다.”

이제 이벤트는 더 이상 이벤트가 아니다. 설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이벤트는 구매자들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각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은 ‘홍수’라는 말로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구매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무감각해진 구매자를 일깨우고 정보의 홍수는 헤치고 자신의 제품이 구매자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한다. 판매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6. 잊어버리거나 혹은 지워버리거나

“이봐. 알바노, 언제까지 이 늙은 노인네에게 다 떠맡길 텐가?”

알바노는 예의 웃음과 함께 오른손으로 주머니의 동전을 꺼내 들어 왼손으로 튕겼습니다. 능숙하게 튕겨진 동전은 휘리릭, 휘리릭 공중을 갈랐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죠. 자신과 관련된 큰 사건이 아니라면 대개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우리 서커스단은 처음에 그 오류를 범했던 거죠. 잠재적 관객의 가슴에 알려지지 않고 머릿속에만 자리 잡으려는 노력. 그건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건 곧 결과가 나왔지. 늘 그렇듯이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었으니까.”

페레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단장님의 계획은 매스마케팅의 전형이었던 겁니다. 매스마케팅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단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지속성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곧 대중의 기억력이 바로 매스마케팅의 한계입니다. 잠재 고객의 의견을 무시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주입식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광고가 끊기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곧 사라진다는 거죠. 땅에 버려진 브로셔와 같이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페레는 알바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페레의 느닷없는 진지함이 부담스러웠는지 예의 웃음을 흘리며 단장의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단장은 알바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삼일 췌 공연이 마치고 난 다음이었어. 관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시민들의 관심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지. 그때 이 친구 알바노가 찾아 온 거야. 너털너털해진 우리 서커스단의 포스터를 들고 말이야. 아주 특이한 친구였지.”

알바노가 마치 먼 과거의 이야기를 하듯, 하늘을 흘깃 본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리카 태생이에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에서 다시 마케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 후 프랑스로 판토마임을 공부하러 갔다가 마술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신학에, 마케팅, 판토마임이 도대체 다 뭐냐고 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덕분에 극단에서 마술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제 고향 아리카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리카는 문화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모두 살기에 바쁘더라구요. 많이 실망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서커스단이 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서커스단의 변화에 대한 진지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

“그래, 자네가 마술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술공부를 하고 소극장에서 마술공연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커스단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네. 단장님께서만 허락을 하신다면 이 서커스단에서 제가 가진 능력을 맘껏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커스단은 마술공연은 잘 하지 않아. 마술은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마술을 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은 알바노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당분간 같이 일하기로 하세. 굳이 마술이 아니더라도 마침 인원도 부족하니까 말이야. 당분간 잡일도 할 수 있겠나? 우리 서커스단의 분위기를 익혀야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장님 요즘 관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한 번 거리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야.”

“네. 그러시군요. 단장님 제가 프랑스에서 마술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얘긴데 그러냐?”

“익숙하다는 거에 관한 얘긴데요. 익숙하다는 건 가끔 지겹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심지어 숨을 쉬는 것마저도 가끔 지겨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매번 똑같은 방법의 홍보라면 사람들은 그냥 안보고 말겁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깐요.”

“이봐. 알바노,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거라구.”

“알고 있다면 해답도 나와 있겠군요.”

“이봐 자네가 못 봐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서커스단이 이곳 아리카 시에 들어와서 거리 홍보를 얼마나 근사하게 했는지 아는가? ‘9월 18일 거리(18 de Septiembre)’ 와 ‘5월 1일 거리(21 de Mayo)’를 휘젓고 클론 광장, 자네도 알지? 그 광장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커스단을 보고 열광했다네. 대단했지. 어디 그뿐인가?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번 씩은 꼭 지나쳐 다니는 거리까지 알고 있다네. 거기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을 골라서 포스터를 붙이고, 공연 일주일 전부터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는 일도 빼놓지 않았지. 아마도 전에 있었던 트럼프라는 도시보다 2배는 더 많은 전단지를 뿌렸을 걸? 그런데 이 이상 뭘 더 어찌겠나? 하나님도 나처럼 열심히 하시긴 힘들걸? 물론 그 분이야 기적을 행해서 구름떼처럼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순 있겠지만 말일세.”

“단장님,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장님, 하나님을 배워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 7. 위대한 마케터, 하나님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린가?”

알바노는 진지하고 심각한 얼굴로 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장은 그런 알바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헛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위대한 마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케터? 지금 나보고 기적이라도 일으키라는 소린가?”

단장은 두 눈을 꿈뻑거리면서 알바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초기에는 인류에게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으셨죠. 단장님처럼요. 사흘 밤낮으로 비를 퍼부어서 노아의 방주를 띄우시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적도 있구요. 하지만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도 결국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전단지엔 인쇄된 서커스단에 대한 기억쯤은 얼마든지 쉽게 지울 수 있죠.”

“그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곤 하지.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걸세.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해결하겠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단장님, 모세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세? 알다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선지자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불씨를 지핀 인물이라고나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이집트)을 떠나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백성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는커녕 사막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까요. 원

망과 불평이 높아지자 모세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죠. 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보게 알바노, 시간 끌지 말고 좀 더 빨리 이야기해 줄 수 없겠나?”

“네. 그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부족의 장로 70명을 뽑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모세에 내린 같은 영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70명의 장로들은 또다시 예언자가 되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죠.”

알바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단장은 검지로 탁자를 톡톡 쳤습니다. 그것은 뭔가 생각에 빠져있을 때면 으레 나오는 단장의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줄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이걸 또 무슨 소리인가?”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태도, 의견, 행동 따위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카시 주민들에게 신제품 와인을 홍보해야 한다면, 그들 중에서 와인에 관련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홍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어쨌거나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걸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전체에게 ‘누가 와인에 관한 의견을 주도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많은 마을 행정기관의 기관장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리카시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겁니다. 와인에 관해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를 말이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민이 바로 오피니언 리더가 될 것입니다. 또 실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혹시 주변에 단장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선생님이나 반장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없나요?”

단장의 표정은 갈수록 심란해져갔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서 안 됐던 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바노는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단장을 향해 환하게 웃어보였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글쎄 아리카시에 나를 믿어주면서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나파치오 시장?”

“좋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있으시군요. 마침 아리카시는 지금 공업화와 문화관광화로 나뉘어 시민들의 여론이 양분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단장님에게 모세와 일흔 명의 장로를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알바노는 로드리게스 단장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찢어진 포스터와 흙이 묻어 너털너털해진 브로셔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좋아 그럼, 그들을 소개받은 다음에는?”

“그들을 몇 개의 비슷한 성향으로 묶어 그룹으로 만들어 서커스의 시연회를 몇 차례 가지는 겁니다. 문화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등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지요. 일단 이들에게 공연의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최고의 공연을 선보여야 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서커스를 보고 나면 무언가 ‘이야기 꺼리’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 다양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장은 무언가 감이 잡히는 지 알바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

“시장님, 저희가 작은 공연에 아리카 시의 문화계 인사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공연도 보여드리고 같이 연회도 즐기고 시장님이 저희에게 베푼 친절에 작은 보답이 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의 신문을 만드는 공보과장이자 내 비서 역할을 하는 돌로레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겠군요.”

아리카시의 공보과장 돌로레스는 시장의 전달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30분이 지나자 약 서른 명의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님 이정도면 충분하십니까? 또 다른 부탁이라도?”

“이런 공연을 몇 번 더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을 추천해주시면 그 분들에게 저희 서커스단의 작은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지요. 돌로레스, 자네는 다음번에도 단장이 부탁을 해오면 맡아서 처리해 주게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천막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웅성거림을 멈추게 한 것은 무대 위에 단장이 나타나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드아이 서커스단 단장 로드리게스입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곳에서 공연을 허락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아리카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라도 될까 싶어서...”

단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로 알바노와 소년 미구엘이 오드아이를 가진 동물인형과 양증맞은 뱃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이 내려가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무대를 주목했습니다.

무대에는 아름다운 아리카 항구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영상이 펼쳐지고 그 영상을 배경으로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각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관객들은 빼에로의 재롱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고 아찔한 공중곡예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마술사 알바노의 마술예선 모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알바노의 마술은 영상과 마술의 결합이었습니다. 산 마르코 교회, 아리카 구릉, 항구, 민예품을 파는 재래시장 등 아리카의 아름다운 풍경이 알바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오드아이 서커스단에서 준비한 바비큐를 즐기며 애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 으뜸은 단연 알바노의 마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중에는 아까 나눠준 뱃지를 벌써 가슴에 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아리카 항구의 바다는 온통 붉은 천을 휘감은 중국신부 같았습니다. 단장은 붉

게 물든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페레에게 말했습니다.

“어편가 페레, 이 바다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관객이 늘어났지.”

로드리게스 단장의 눈길을 받은 알바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니요?”

알바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려 페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뱃지였습니다.

“그 뱃지를 달고 돌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돌아왔습니다.”

## 1. Am 6:00 마음을 여는 편지

페드로는 마지막 엔터키를 치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 Am 6:00 마음을 여는 편지 (76)

[삐에로의 눈물]

거울 앞에 서서 자주 얼굴을 보시나요?

4살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는 한 아이, 미구엘.

커가면서 미구엘은 땅위에서 자꾸 떨어지더랍니다.

미구엘은 푹푹푹푹한 눈동자를 굴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려고 무대에 서요.

틀려야 하거든요.

넘어지려구요. 무릎도 까지구요.

넘어져야 앉아 있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며 살아가는 거라구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배를 잡고 웃어만 주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외발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줄을 타다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웃지를 않으면,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땐 정말 슬퍼지겠지요.

일어설 수가 없을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넘어지는 건데,

일어설 수가 없다면 삐에로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고요. 화장을 마쳤거든요.

잠깐만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주 가끔, 어쩌다가 한 두 번은 속으로만 울어주시겠어요?

저기 무대 위에 또 한 놈 넘어졌네 하시면서요...

바람이 많던 날,

저는 솔브레로 언덕의 천막 안에서 그런 삐에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사는 곳은

오드아이 서커스단,

저는 나이 마흔을 넘기고 한 뺨에로 소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고> 오드아이 서커스 홈페이지 [www.odd-eye-circus.com](http://www.odd-eye-circus.com)

전화번호: 058-3-443-9603

페드로는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자신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비단 페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공연을 봤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본 서커스를 말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드아이 서커스단에게는 관객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장이 한통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드아이 서커스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공연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9월 20일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매일 공연을 하나요?”

“아니요. 주말만 합니다. 오전과 저녁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미구엘이라는 뺨에로 소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네. 제가 [아침을 여는 편지]라는 E-뉴스 레터를 받아보는데 거기 그 소년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공연을 보러 가면 미구엘을 꼭 만나고 싶어요.”

“뉴스레터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단장입니다. 책임지고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단장이 전화를 끊었을 때 마침 미구엘이 단장의 차를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장은 말없이 미구엘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일흔 명의 장로가 된 거 였군요?”

“네. 아주 퍼펙트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브라힘 페레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정도만으로 그만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진짜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로드리게스 단장이 노을에 붉게 물든 얼굴로 페레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양팔을 좌우로 벌리며 말했습니다.

“예수가 등장했네. 그건 또 다른 마술의 시작이었지.”

## 하나님의 성공 법칙 하나.

“ 장로(오피니언 리더)들을 선발하라. 그들이 곧 미디어다. ”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도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 16~17절) 』

성경에 의하면 오래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홍해 가르기, 노아의 방주 등의 기적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총체적인 기억력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결과가 그리 좋은 편은 못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한 예수님을 통해 강림하셨고 기존처럼 ‘사람들을 한꺼번에 공략하는 방식’을 벗어나 사람들을 활용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의 영향력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벤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보다는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네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 [ 포인트 ]

네트워크 사회는 사람이 미디어입니다. 신문과 방송도 효과적인 미디어임에는 틀림없지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보다 강력한 소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와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매스 마케팅보다는 대인(對人) 마케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들.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를 발견하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판매자는 '판매'하고 구매자는 '구매'를 한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는 구매자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사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들은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판매자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 8. 구스만씨와 비밀의 정원

“예수라니요?”

페레는 이걸 또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단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단장은 대답 대신 리세라 해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페레는 단장의 손끝을 따라가 보았지만 거기엔 노을에 물든 붉은 바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바노가 페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화원을 하고 있는 구스만의 얘기입니다.”

“늘어나던 관객들이 어느 순간 정체가 되기 시작하던군. 그렇게 줄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닌, 그건 곧 불안을 의미하는 거였지.”

“그렇죠. 정체는 결국 소멸을 의미하니까요. 근데 예수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바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의 역할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했구요. 페레씨, 혹시 여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저야 지금까지의 말씀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질감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아리카시의 정서를 대변할 뿐이지 아리카 시민의 전체 감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이질감 같은 거. 우리 오드아이 서커스단과 직접 소통할 동질의 감성을 지닌 시민이라고 보기에겐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인 예수를 보냈던 거구요. 즉, 하나님 자체로서의 인간 예수를 보냈던 겁니다.”

“그건 크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설마 진짜 예수를 보냈다는 건 아닐 테고...”

“알바노, 저 친구가 예수를 찾은 거지.”

페레는 무언가 잔뜩 기대를 가진 눈으로 알바노를 보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 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분은 부모님, 형제자매의 관계를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다 지내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는 설교자로서의 시간보다 목수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시간이 더 길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난간을 잡고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이제 검붉은 빛을 띠고 거리 여기저기 불빛이 밝아지고 아리카시는 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 속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목수’ 예수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손은 목수 일로 굳고 단단해졌을 것이며 목수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기진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그 일을 하다가 연장이 부서지고 임금 때문에 말다툼이 오가는 모든 갈등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같은 크기의 나무토막을 깎아야 하는 일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을 거고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좌절감,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겪는 유희와 고통 및 좌절을 알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는 우리가 겪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데요.”

“어렵지만 쉬운 이야기입니다. 정작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삶을 살았던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그건 예수가 인간의 고통을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난 뒤 인간의 마음위에 하나님을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 그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을 해소시킨 건 인간과 동일한 감성을 지닌 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자마자 우리 서커스단의 현재의 모범 답안은 예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다. 아리카 시민의 가슴속에 파고 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다.”

“어떻게 보면 참 파격적인 생각인데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예수는 아리카 시민이다 ... 그는 아리카 시민이면서 서커스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 홍보대사 같은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리카시민이어야 하지만 우리 서커스단을 이해하는 사람. 즉, 서커스를 좋아하고 우리와 같은 감성을 지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저쪽에 정확하게 알려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예수는 어떻게 찾은 겁니까?”

“사실은 찾았다기보다 찾아진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기다린 건 아니구요. 먼저 기본적으로 서커스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관람 왔던 관객들 중에 특히 관심이 있던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서커스단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준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리카시에 살고 있는 마술 동호회 사람들을 찾기도 했는데 모두 조금씩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군요. 단지 좋아한다는 것과 예수 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로드리게스 단장, 알바노 그리고 페레는 아리카 구릉의 동쪽에 있는 한 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러 가지 꽃들과 나무들이 조명을 받고 있었고 유리문 안으로는 마치 작은 언덕을 옮겨놓은 것 같이 지천으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화원이군요.”

페레는 유리문 밖에서 허리를 숙이며 나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화원의 간판을 읽었습니다. 화원의 간판은 여러 가지 꽃과 꽃잎 그리고 나뭇가지

들로 만든 글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때로는 지겨워질 때가 있더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나요?>

“이 화원의 간판은 매일 바뀝니다. 오늘도 구스만씨의 마음이 나타나 있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 그의 마음이 말이죠...”

“근데 이 화원과 예수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애긴지?”

“이봐, 알바노 이쯤에서 구스만씨의 마술을 얘기해야지. 마침 어둠도 넉넉하고 그 친구의 얘기를 듣기엔 아주 적격이지 않은가?”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화원이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둠과 조명이 어우러진 아리카 구릉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렇게 예수 찾기가 답보상태에 이르고 사실, 좀 지치기도 했어요. 제가 무언가 다른 돌과 구를 찾아야겠다고 느낄 때마다 이 곳 아리카 구릉에 오곤 했어요. 바다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이 화원의 간판입니다. 문득 느낀 건데 올 때마다 이 간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간판이 매일 바뀐다고 하더군요. 이 거리의 명물이라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멀쩡하던 간판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로운 간판으로 바뀌어 있다구요.”

“흥미로운데요?”

“네. 사람들도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침마다 오늘은 간판이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화원의 주인이 무척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죠. 저는 문득 이 화원의 주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원 안으로 들어가 주인

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스만씨였습니다.”

.....

“어서 오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구스만은 알바노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원 안에는 푹푹 하고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노는 그가 앉아있던 책상 위에 색색깔의 꽃잎과 얇은 금속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판의 비밀은 그거였군요? 자석, 맞습니까? 아, 저는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알바노라고 합니다. 마술을 담당하고 있구요.”

“어쩐지 눈썰미가 좋다 했습니다. 후후. 네, 자석 맞습니다.”

구스만은 알바노에게 간이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작은 꽃잎을 들어 보이며 말을 했습니다.

“쓰고 남은 꽃잎과 나뭇가지를 그냥 버리자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간판의 표면을 자기성을 띤 물체로 하고 남은 나뭇가지와 꽃잎 뒤에 얇은 금속판을 붙이고 이걸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조종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쉽죠.”

“여기 마술사가 한분 계셨군요. 그런데 간판을 바꾸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보여주고 싶어서죠. 사람들에게 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린 날은 흐린 대로 그날그날의 상황에 맞게 간판을 바꾸면 사람들은 저의 간판을 보고 ‘아, 저건 이걸 말하는 거구나, 오늘 저 아저씨의 기분은 어떻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화원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과 내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과 통하는 누군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니까요.”

알바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페레는 이제야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알바노를 보았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자꾸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간판에서 보여주는 마술적인 효과. 예수로서 적임자를 찾은 거군요?”

“네. 그때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카 시민이며 마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했죠. 나에게 진짜 마술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오는 손님들한테 꽃으로 하는 마술을 보여주면 손님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군요?”

“네. 그리고 영똥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 9. I can't smile without you

구스만씨의 표정은 예전보다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때그때 날씨와 기분에 따라 간판을 바꾸곤 했던 그였기에, 때로는 우울한 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노에게 마술을 배우기 시작한 뒤로는 늘 상큼하고 신선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마술은 순식간에 꽃을 시들게 하고, 또 거꾸로 순식간에 다시 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구스만씨? 마술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표정이에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마술의 흐름과 얼굴 표정이 일치해야지만 관객들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마련이죠. 지금 꽃이 새로 피어났는데, 표정이 그게 됩니까?”

“네?”

너무 진지한 탓에 구스만씨의 얼굴은 계속해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

“좀 더, ... 더 활짝요!”

이 날 마술을 배우는 구스만씨의 모습은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겨져 그의 블로그에 게시되었습니다.

[kissmeJJ]

그거 시든 꽃하고 활짝 핀 꽃하고 순식간에 뒤바뀌치는 거 아닌가요! ..... 죄송해요. 사실은 저도 배우고 싶어요 TT

[freehooC]

근데 그 옆에서 계속 ‘활짝 웃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술하시는 분인가요? 전 처음에 ‘웃음 전도사’인줄 알았어요. 요즘에 왜 그런 직업 있잖아요.

[warawara]

구스만씨, 그냥 가서 구경만 하면 안될까요. 방해는 절대 안할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까요?”

알바노가 신기하다는 듯이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만씨는 뭔가 쭈뼛 쭈뼛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망설이듯 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알바노씨,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요 ...”

알바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 구스만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하면 어떨까 해요. 가르켜 주신 마술을 가지고 하나의 멋진 이벤트로 그녀를 감동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을 현장에 초대해서 함께 축하받고 싶기도 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포즈로의 초대라... 제가 가슴이 다 설레는데요.”

구스만씨가 자신의 공개 프로포즈 계획을 블로그에 올리자 사람들은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구스만씨의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바노는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서커스단원까지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스름이 짙어지는 시간, 구스만씨의 사랑하는 여인은 아무 것도 모른 채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붐비던 곳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화원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서성이고 있을 때 화원의 문이 열리며 빼에로가 나타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화원의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간판에 붙어있던 나뭇가지와 꽃잎 글자들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I can't smile without you”

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기쁨이 교차된 웃음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그때 화원 안으로부터 구스만씨가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자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그와 그녀의 머리 위에 어디서 내리는지 색색의 꽃잎들이 눈보라처럼 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의 함성을 질렀죠. 사람들의 함성을 등에 업은 구스만씨는 녹색의 작은 상자를 꺼내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키스를 가져와 천위에 떨어뜨리고 조심스럽게 천을 벗겼습니다. 천을 벗기자 상자는 사라지고 한 떨기 붉은 장미꽃 화분이 나타났습니다. 구스만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하는 눈빛으로 장미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러자 그 장미가 봉오리를 터트리며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미 안에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청혼을 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스만씨의 손끝이 떨리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자 화원의 지붕위에선 불꽃이 터지고 사람들은 박수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스만씨의 얼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술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사인 <IV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인터뷰를 하는 구스만씨의 얼굴에는 뭔가 모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기자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프로포즈 동영상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아셨나요?”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한다는 생각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뷰라는 말에 손사래부터 쳤던 알바노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서커스단 홍보도 필요했거니와 구스만씨를 그 자리에 있게 한 진짜 주인공이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마술에 흥미를 느낄 줄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구스만씨의 마술 같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인터뷰 이후에 오드아이 서커스 단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서커스에 무관심하던 아리카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서커스단 홈페이지에서 마술 동영상을 올리며 마술에 대해 교류를 했으며, 때로 직접 공연장에 와서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서커스단과 아리카 시민들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둘.

### “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를 발견하라 ”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6-8)

가족은 가장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두 가족이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치면 아빠는 아빠와, 엄마는 엄마와, 아이들은 아이들과, 그리고 개는 개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다. 서로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그 어떤 차이보다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쁨에 행복해하고 고통에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신’이 아닌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구속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역시 본질적으로 이질적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판매자의 이야기를 억지로 강요하기 보다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다른 구매자의 이야기를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들 역시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담, 사용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 [ 포인트 ]

확산을 주도하는 사람은 확산하고자 하는 조직의 성향보다는 확산시키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공략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네트워크 속에서 판매자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구매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예수님’입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셋.

### “ 기도를 슬기롭게 들어라 ”

기업이 구매자들보다 더욱 우월한 존재였던 시대는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고객은 왕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 어쩌면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치라고 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들의 취향이 바뀌고 구매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업의 운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 10. 벽 앞의 기도

솔브레르 언덕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드아이 서커스단은 밤에도 무얼 하는지 여러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서커스단을 찾은 지 삼일 째 되는 밤, 단장이 준 와인 까사콘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이브라힘 페레는 누군가 자신의 천막을 향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막을 걷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알바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동전이 들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알바노는 늘 같은 동전을 들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네가 늘 들고 다니는 그 동전은 뭔가 특별한 물건이라도 되는 건가?”

알바노가 또다시 동전을 튕겨 왼손, 오른손으로 번갈아 잡습니다.

“그럼요. 이걸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간 소중이 하나씩 하나씩 모았던 다섯개의 프랑 동전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동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지금은 유로 센트를 쓰니까 프랑 동전은 희소가치가 있겠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이자 ‘소리’예요. 타인의 소리를 듣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 ”

“흠 ... ”

페레가 알 듯, 모를 듯 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개의 프랑 동전은 왼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오른쪽으로 옮겨놓죠. 귀가 두 개, 입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어느덧 페레는 취재수첩을 꺼내놓고 한참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적으세요?”

“맞아, 자네 말처럼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적어야지. 그래 오늘은 왼쪽 주머니에 몇 개의

동전이 남았나?”

“하나요. 이제 마지막 동전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리’를 들으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콜론광장에 있는 산 마르코 교회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 속에서 교회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산 마르코 교회는 스페인의 콜로니얼 양식이 아닌 어찌 보면 앙증맞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에펠탑으로 유명한 에펠이라는 사실은 조금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종소리는 마음의 짐을 털어내려는 듯이 페레의 가슴을 두드리고 알바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교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뒷모습이 앉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드리게스 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 서커스단을 위한 기도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단장은 고개를 들고 페레를 돌아보았습니다.

“God bless you.”

페레는 알바노의 입에서 나올 어떤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소원을 빌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갈망 같은 건가요?”

알바노는 페레의 옆으로 다가와 앉으며 교회 중앙에 걸려 있는 커다란 십자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오늘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다고 말씀하실까요?”

페레가 무언가를 생각하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자 알바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라기보다 내 기도를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를 쓰다듬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의 믿음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통이요?”

알바노는 성경의 예를 들어가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나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기를 보아달라며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열다섯 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십 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테서 십 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알바노는 자신을 보고 있는 페레와 단장을 한 번씩 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속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마주한 벽은 막힘의 벽, 진로 차단벽의 벽, 불가능의 벽, 인간 한계상황의 벽을 뜻 합니다. 그 벽을 향해 기도하는 히스

기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히스기야는 내 기도가 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와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객도 늘어나고 늘어난 관객만큼 우리를 향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겠지요. 구스만씨의 프로포즈 사건도 있었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리는 듣는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듣는 방법이요?”

“네. 우리는 그냥 좋은 말을 해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반성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이야기만 듣고 있던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했으니까. 알바노,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 순서지? 대충 보아하니 다음 얘기가 그거 같은데?”

알바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단장님. 페레씨 이제 돌아갈까요. 가서 솔브레로 언덕의 바람을 느껴보시지요.”

세 사람은 산 마르코 교회를 나서 다시 솔브레로 언덕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바노가 안내한 곳은 서커스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의 조명을 켜고 그는 페레를 공연장 내부 화장실로 가는 길의 한쪽 벽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벽은 초록색과 파란색의 접착용 색종이가 빼곡하게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이 붙어있었습니다.

### [ 속삭이는 벽 The Whispering Wall ]

\* 호주 남부에 있는 바로사 저수지(Barossa Reservoir)를 담수하는 거대한 둥근 저장탱크로써 그 벽을 일컫는데 길이는 140미터에 높이는 36미터이다. 신기한 것은 한 쪽 벽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 다른 쪽 끝에서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귀를 귀울여라...’

페레는 녹색과 파란색의 쪽지들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녹색의 쪽지는 관객들이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편지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 녹색의 쪽지 밑에 파란색의 쪽지가 붙어있었는데 그건 관객들의 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는데요.”

“정말 재미있지? 나도 이 친구 알바노가 한 짓 중에 저게 제일 마음에 드네. 찾아보면 내 얘기도 있어. 어디 있더라... 아, 여겼네. 한 여자 아이가 ‘단장님은 오드아이 서커스단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적어놓았더군. 근데 우리 단원 중에 나한테 불만이 있는 놈이 있었나봐. 그 밑에다가 ‘그게 저도 궁금해요’ 라고 써놓은 거야.”

알바노는 그때가 생각나는지 유쾌하게 웃으며 단장의 말을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고 또 다른 관객이 ‘뭘든 하겠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써놓았어요.”

페레는 그 말을 듣고 달려오듯이 그 글 앞에 섰습니다.

“여기 다른 단원이 또 썼어요. 이거 혹시 알바노씨가 쓴 거 아닌가요? ‘오늘부터 단장님이 서커스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하하.”

“사실 이걸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알바노는 떨어질 것 같은 쪽지를 다시 단단하게 붙이면서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방송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서커스단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그들이 남긴 글을 보고 우리는 재밌기도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라니요? 행복하셨다면?”

“행복하기만 했으니까요. 우리만 행복했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벽을 쳐 놓고 그 안에서 우리만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홈페이지에 사람들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 단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 11. 속삭이는 벽

공연장의 객석엔 관객 대신 단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단원들의 표정엔 불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던 원숭이 조련사 브리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알바노. 그건 안 될 말이야. 자네 생각이 틀렸어. 이건 고민할 문제도 아니야. 생각해 봐. 내가 원숭이들을 데리고 학교공연을 한다고 치자 말이야. 그런데 관객들이 그 다음 장면을 미리 알고 ‘야, 다음에 저 원숭이가 재주를 넘는다.’ 이진 맥 빠지는 일이라구.”

“마찬가지야. 내가 철근을 꺼내기만 하면 관객들이 ‘저걸 지금부터 목으로 휘어버릴 거야. 난 봐서 알아.’ 알바노, 이진 아니야.”

차력사 발데스도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공연장은 단원들이 내뿜는 우려와 불만의 말들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공연 레퍼토리를 바꾸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는 못하지.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또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마르께스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알바노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서커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커스에 대한 선입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 있게 공개하고 보여주면, 그들은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레퍼토리를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노력 없이 우리는 관객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들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게시판을 보십시오.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벽을 느끼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단장이 머리가 아픈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흥미로운 대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게시판을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알바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는 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

지 모르는 것을 듣는 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다랗게 울려도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서커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면 우린 텅 빈 무대에서 독백을 하는 뼈에로일 뿐입니다.”

단원들은 하나 둘 알바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만큼 떨어져서 하릴없이 의자만 만지고 있던 단장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그때였습니다. 알바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관객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말만 들어주기를 강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강요가 우리를 우리의 관객들로부터 격리시켜버렸을 때도 우리는 관객들의 변덕만을 원망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었나요?”

“하지만 알바노, 우리가 관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우리는 공연을 하고 난 다음이면 매번 관객들의 반응을 살폈다구.”

로드리게스 단장은 파이프를 입에 물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듣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있는 것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노 아저씨, 관객들을 무언가를 적으라고 하면 적지 않을 거예요. 다들 서커스가 마치면 모두 돌아가기 바쁘거든요.”

“그것 역시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적으라는 것도 강요이니까. 관객들이 좋은 의견을 적으면 그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답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음 서커스 공연의 로얄석 티켓과 오드아이 서커스단 명예의 전당에 관객의 사진을 걸어두는 건 어떨까요? 혹은 의견을 제안한 사람을 직접 서커스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바노는 숨이 찬지 깊게 숨을 들이 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객들과 우리가 한 호흡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와 관객은 말하는 것을 듣는 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귀, 그리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듣는 귀... 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음 공연이 다가왔습니다. 공연장엔 6mm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고 가브리엘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벌써 입장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커스가 시작되자 네티즌들은 공연을 보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기가 게시판 운영자이며 서커스를 배우는 소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말만 오갔지만 차츰 게시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한 네티즌의 질문에 답을 올린 가브리엘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U-boat]

저 원숭이들도 서열이 있을까? 그럼 누가 왕초 먹을까?

[bluesky]

저기 꼬리 굵은 놈에 한 표!

[tosee]

난 영정이 완전 빨간 놈. 덤블링 탄력이 장난이 아니야.

[missyou]

원숭이처럼 생각해. 저기 바나나 들고 있는 놈. 당연하잖아.

[nightking]

너 원숭이구나.

[Odd-Eye]

운영자입니다. 왕초는 저기 연기 안하고 슬슬 노는 놈입니다. 보이시죠? 빨강 옷 입은 놈. 암컷 독점입니다. 나쁜 놈....

[bigfoot]

암컷독점이라... 오래 못 살겠군요.

[Odd-Eye]

오래 못살아도 저렇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저 놈.. 힘 좋습니다.

[tosee]

부럽군. 비결이 뭘까?

[missyou]

타고났나? 유전자 조사를 해보자구.

[Odd-Eye]

유전자 분양해 드립니다....

가브리엘은 당돌한 신세대 소년답게 그들과의 대화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게시판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네티즌들이 던지는 질문에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하며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새로운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loveme]

서커스단엔 어떻게 들어갔나요?

[Odd-Eye]

버스를 타고 일곱 정거장 지나서 도보로 약 8분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이 알바노에게 기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알바노 아저씨, 인터넷만 리플을 달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연장에 있는 게시판에도 리플을 달아 주자구요. 그러면 아저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객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관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페레는 로드리게스 단장이 파이프를 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벽 The Whispering Wall]** 게시판을 살피는 알바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이 게시판이군요.”

“사실, 가브리엘은 일일이 답변하기가 귀찮았나 봅니다. 마치 숙제를 하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브리엘에게 ‘같이 놀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커스 단원으로 참여하지 말고 너도 같이 중계하는 화면을 보고 사람들과 같이 놀라고 그랬지요. 아주 자유스럽게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같이 놀자 네티즌도 놀기 시작하더군요.”

페레는 게시판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쪽지들은 관객들의 관심이었

습니다. 그리고 그 관객들의 관심에 대한 오드아이 서커스단원들의 고마움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은 페레를 어느 쪽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관객들 때문이었네.”  
페레는 단장이 가리키는 쪽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재미있긴 한데요. 이거 말고 다른 서커스는 없나요?]

[매직도 하고 서커스도 하는데 매직 서커스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얘기  
죠. 나도 뱃지 주세요!]

알바노가 어떤 쪽지를 조심스럽게 떼어서 페레에게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기도가 들리더군요. 그 기도는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가 그 숙제를  
해결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쪽지에는 귀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9살 마주르카예요. 서커스단 아저씨 아줌마 왜 아리카 바다에는 고래가 없어요? 마술사 아  
저씨, 아저씨는 마술사니까 고래도 만들 수 있죠? 아저씨 고래 좀 보여주세요. 예쁜 분홍색  
돌고래요. 부탁이에요. 사실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아마도 분홍색 돌고래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건 비밀인데요, 그곳에 함께 가고 싶은 사  
람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셋.

### “ 기도를 슬기롭게 들어라 ”

기도는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결과를 들어주시지는 않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고 있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스스로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기도의 이유가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쌍방향의 관계도 믿음도 위협해지고 말 것입니다.

#### [ 포인트 ]

조직이나 개인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모두 실현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관계와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것에 매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기업에 반영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어서도 안됩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넷.

“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는 커뮤니티이다 ”

때로 구매자는 미래알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 상품 구매 직전까지는 놀라운 관심을 보이지만, 일단 상품 구매가 끝나버리면 바닷물에 흘러내리는 미래성처럼 제 각각 흩어져 버리고 관심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자는 희망한다. 이미 자신의 제품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이 그 장점을 더욱더 전파해줄기를 말이다. 그러면 구매를 앞둔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강력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미래성을 철용성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 12. Start or St. Art

“돌고래요?”

“네. 돌고래를 만들어 달래요. 아리카 바다에는 돌고래가 없거든요. 하하. 그것도 분홍색 돌고래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기분이 좋은지 알바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마주르카의 쪽지를 소중하게 어루만졌 습니다. 알바노는 단장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페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저희들의 성지로 모시겠습니다.”

“성지요?”

“네. 맘에 드실 겁니다.”

다음날 오후, 페레와 알바노 그리고 로드리게스 단장은 콜론 광장의 서쪽 어느 2층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얀색을 베이스로 해서 군데 군데 검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멋스러운 외양의 건물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나무 간판에 Star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페레가 초인종을 누르자 반가운 손님이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구스만 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 아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회원은 어떻게 하고 여기 계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 성 아트 회원들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회장이라서 미리 준비할 것도 있고 해서...”

구스만과 네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실의 내부는 세계의 역대 유명 미술사와 서커스단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 회원들이 유리문으로 된 장식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프로포즈를 하고 얼마 후 었습니다.”

구스만은 여전히 매일 매일 간판을 바꾸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전보다 훨씬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간판을 보기 위해 아리카 구릉에 들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꽃을 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 같지 않은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연이 알려진 후 구스만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와 같이 마술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오드아이 서커스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마니아라고 할까요? 오드아이 서커스단 마니아가 생긴 거죠. 당연히 그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동호회가 된 것입니다. 누가 만들자고 적극 주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가 자기의 마술이나 서커스의 묘기 같은 것을 보여주고 평가하고... 참 자연스러운... 그러다 보니 스타트(Start)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회칙이 만들어지고 제가 회장이 되고 제대로 갖춰진 동호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게 되구요.”

“그럼 알바노씨는?”

“저는 직접적인 역할이 없었어요. 다만 구스만씨의 블로그와 동호회원들의 카페가 서커스단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었죠. 이로 인해서 서커스단 홈페이지도 더 활성화되었고, 구스만씨의 블로그와 동호회원들의 카페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오드아이를 모르던 사람도 동호회를 통해서 오드아이를 알게 됐고, 반대로 오드아이만 알고 동호회를 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동호회에 가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든든한 협력관계를 맺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아까 성 아트는?”

파브리시오는 진열장을 정리하던 회원 한 명을 불러 그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른 중반쯤으로 보이는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건물을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냥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델가노씨가 본인 소유의 비어있는 건물을 흔쾌히 제공을 하셨어요. 거기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저와 단원들이 마술과 서커스를 가르쳐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스만씨와 몇 명이 오드아이 서커스단을 찾아왔더군요.”

.....

알바노가 단장의 천막에 들어섰을 때 그와 가장 먼저 눈길이 마주친 것은 구스만씨였습니다. 알바노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파브리시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Start)가 우리만의 쉼터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델가노씨의 도움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멋지군요.”

“하지만 델가노씨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건 여기 오드아이 서커스단원들이 우리 스타트(Start) 회원들에게 서커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알바노씨의 마술은 당연한 것이구요.”

“서커스를요?”

“네. 그러니까 서커스 학교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알바노씨에게 마술을 배워 ‘스타트(Start)’ 이름으로 몇 번의 거리공연도 했고 아시다시피 반응도 좋았습니다. 덕분에 회원 수도 많이 늘고... 이렇게 늘어난 회원들과 단순히 모여서 서로의 정보만

공유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 단원들이 그럴 시간이 있을까?”

단장이 걱정스런 눈길로 알바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단장은 이들 스타트(Start) 회원들이 서커스단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조심스런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이 서커스단을 벗어나 자신들만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이 약간 꺼림직 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잠시 생각하던 알바노는 단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좋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돌아가며 가르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진즉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단장은 알바노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생각인가야? 단원들이 좋아라 할 리가 없잖은가? 자네가 잘 알잖아. 서커스 기술은 그들이 십년 많게는 수십 년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익힌 것들인데 그걸 남한테 알려주는 일을 단원들이 허락할 것 같은가?”

“일반적인 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갈 테니까요. 어찌면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이진 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 같은 겁니다.”

“닝쿨째 굴러온 호박?”

“단장님도 교회에 가지죠?”

“교회? 가지. 근데 이거랑 교회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다른 곳으로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임’(assembly)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에게 속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불러내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모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장님, ‘마가의 다락방’을 아십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핍박받던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집회장소로 제공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죠. 그들은 그곳에 모여 박해와 고통을 이기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자는 거야 뭐야?”

“하하.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결집력이 강한 것은 가족입니다. 숫자가 적은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통, 아픔, 답답함, 눈물, 다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그게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단단해졌듯이 우리의 스타트(Start)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로드리게스 단장이 아직도 뚱한 표정으로 알바노를 쳐다보자 알바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역시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재충전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스타트(Start) 모임을 돕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곧 우리 서커스단을 돕는 것입니다.”

“자네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단장님.”

단원들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스타트(Start) 회원들에게 서커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자는 것이냐며 툭툭거리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차력사 발데스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알록달록한 조끼를 입고 서커스 단원들 앞에 나타나 단원들을 웃긴 사건도 불만이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날은 발데스가 스타트(Start)로 가서 차력을 가르쳐 주고 온 날이었습니다. 알바노의 천막으로 들어온 발데스가 알바노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봐 알바노. 자네마저 날 놀리면 난 자네의 허리를 철근처럼 휘어버릴지도 몰라.”

“그건 곤란하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발데스는 쭈뼛거리며 무언가를 알바노에게 내밀었습니다. 찢어진 포장지 사이로 보이는 것은 조끼였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쪽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발데스 아저씨 이걸 입으시면 훨씬 착하게 보이실 거예요. 아저씨는 너무 무서워 보이시니까 꼭 이걸 입으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맘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를 보면 힘이 나는 클레르가)]

“놀리다니, 이걸 너무 부러운 걸.”

“열여섯 살 이래, 남을 위해 이런 걸 만들기는 처음이라 하더군. 이봐, 알바노 누가 날 위해 이런 걸 만들어 준건 우리 엄마 빼고는 처음이야. 이걸 어찌지?”

“어찌긴 입고 다니면 되지. 그걸 걱정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걸 너무 알록달록하고 계집애 같은데? 벌써 브리앙 자식이 배를 잡고 넘어졌단 말이야.”

“질투야. 질투. 브리앙은 못 받았잖아. 예쁜 소녀가 준 선물인데... 이걸 정말 놀리기라도 해야지 부러워서 안 되겠는데?”

발데스는 점점 붉어지는 얼굴을 하고는 한참을 그 조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알바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알바노... 나 처음으로 서커스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발데스는 천막을 나가려다 말고 알바노를 돌아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까, 브리앙하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브리앙이 바쁠 것 같다고 해서.... 뭐 할 수 없이 내가 한 번 더 나가기로 했네.”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하.”

발데스는 도망치듯 천막을 빠져나갔습니다. 알바노는 산만한 덩치를 가진 발데스의 그런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페레는 알바노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한 번 자기가 앉은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쩐지 이곳에 가슴을 적시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파브리시오씨도 그렇고 저기 다른 회원들의 말도 그렇고 여기를 ‘성 아트’ 라고 부르던데?”

“그건 누군가 Start의 스펠링을 잘라서 St. Art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 예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죠. 마술과 서커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Start에서 지금은 St. Art가 된 거죠. 하하. 너무 금칠인가요?”

“아니요. 아주 그럴듯한데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아이는 나폴거리의 플라넬 치마와 귀여운 머리띠를 하고 있는 열 살 남짓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마주르카예요. 돌고래를 만들어 달라던 그 아이죠.”

“아, 그 아이? 쪽지에 있는 글처럼 귀여운 아이군요.”

“저 아이가 돌고래를 만들었어요. 아니, 서커스단을 다시 만들었죠.”

“예?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바노는 의자를 끌어당겨 탁자에 팔꿈치를 대며 말했습니다.

“성 아트 회원들은 우리를 계속 담금질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서커스를 만드는 일이었죠. 지금까지의 서커스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데 서커스단은 별 다를 게 없는 서커스를 가지고 무늬만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통렬한 지적인데요.”

“사실, 단장님께서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성 아트 회원들이 부채질을 한 거죠. 회원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했어요.”

알바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파브리시오는 옆방으로 가서 파일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파일박스의 겉표지에는 푸른색 글자로 [Hello, Circus. Hello, Happiness] 라고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예쁜 고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결심을 하신 단장님과 단원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커스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도를 듣고 이곳 성 아트에서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물에 모여 단지 빨래만 하거나 혹은 물을 길어만 가지는 안짱아요. 그 곳에 모여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웃듯이, 우리의 그 우물에서는 새로운 서커스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 13. Change all about circus

그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알바노와 로드리게스 단장 그리고 열 명이 넘는 회원들은 성 아트의 거실 탁자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떤 회원은 계속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또 어떤 회원은 지나간 서커스의 역사를 담은 책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파브리시오는 화원에 있는 연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알바노였습니다.

“아리카 바다에 고래가 사는 상상만으로 전 벌써 행복합니다. 마주르카의 쪽지는 저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꼭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멋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 관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커스의 내용이에요. 단조로운 구성 그러니까 외발자전거가 나오고 마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 동물들이 나오고 마지막엔 공중그네를 타고... 이런 건 질리도록 봐왔던 거니까요. 그들이 나오더라도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난 다음 공연이 뭔지 아예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까?”

“만들어야지. 오드아이 서커스단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서커스니까.”

거실은 점점 열기를 뿜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열 한 번째를 맞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우리 게시판에 적혀 있었잖아. 왜 매직과 서커스만 하냐고? 매직 서커스를 하면 안 되냐고. 그거였어.”

알바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단장은 그런 알바노를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Change all about Circus.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오즈의 마법사가 되어 관객들을 노란 벽돌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물론 고래가 살고 있는 곳으로.”

페레는 파일 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서커스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세계 서커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룩해내었다는 그 서커스의 내용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페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위기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지요.”

“위기라니요?”

책장을 넘기다 말고 페레는 알바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바노는 페레에게 파일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던 한 장의 CD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 아트 회원들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 온 모든 것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과도처럼 바위에 몸을 부딪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페레는 알바노가 가리키던 CD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은빛으로 빛나는 한 장의 평범한 CD가 비밀문서처럼 들어있었습니다.

단장은 아까 그 아이, 마주르카를 무릎에 앉히고 페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의 역할이었네. 새로운 서커스가 기획되자 알바노는 나에게 ‘우리를 노란 벽돌 길까지 안내해 줄 기차표를 사주십시오.’ 라며 나에게 그 기획서를 내밀더군.”

단장은 마주르카를 무릎에서 내려 알바노에게 보내고는 페레에게 다가와 그 파일 박스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봄의 도시 아리카’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날이었네.”

## 14. 보나파치오 시장의 결단

보나파치오 시장은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내리는 빗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리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팔짱을 껴다가 뒷짐을 지고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다시 창문을 잡는 시장을 보고 있던 단장이 무슨 말을 꺼내려 하자 알바노가 옆에서 가만히 단장을 말했습니다. 시장의 비서인 돌로레스도 회의용 탁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놓인 한편의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단장이 돌아와 탁 소리가 나게 의자에 앉은 건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던 그때였습니다.

“단장님, 알바노씨, 당신들의 제안이 매력적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우리 시에 와서 보여준 능력이 당신들의 이 기획을 충분히 보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획서는 우리 아리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있어서 나

는 더 놀랍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말이 거기서 멈추자 단장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나는 아리카 시의 시장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나파치오 시장은 책상에 놓은 기획서를 다시 넘기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희가 아리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의 5%를 아리카시에 돌리겠습니다.”

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알바노가 가만히 그러나 또렷하게 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드아이 서커스단의 관객은 더 이상 아리카 시민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리카 시를 넘어 칠레의 전 지역에서 나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의 서커스를 보러 칠레로, 아리카로 오게 할 생각입니다.”

“시장님 이걸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리도 없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시장님을...”

비서관 돌로레스의 말을 시장은 제지하고 알바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리카 시민만이 관객이 아니라구요?”

“네. 저희는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아리카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아리카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시장님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 모험을 강요하시는군요.”

“모험은 발견입니다. 시장님과 아리카 시민들은 분명 새로운 아리카의 미래를 발견할 것입니다.”

시장은 결심한 듯 자신의 자리로 가서 검은 끈으로 묶인 한 장의 커다란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앞에 놓고 단장과 알바노 앞에서 펼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였습니까?”

페레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페레는 자신이 왜 이렇게 흥분되는 지 알 수가 없었지만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손바닥에 땀이 배고 있었습니다.

“그건 보나파치오 시장과 그의 측근들이 준비해온 아리카시의 새로운 발전 계획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의 측근들과 아리카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장에게도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반대편에 선 아리카시의 ‘21세기 발전위원회’ 라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는 아리카시 대부분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invisible hand, 실질적인 지배기구였습니다.”

“그럼 그 기획서는 어떻게...?”

단장은 들고 있던 CD를 소중하게 손바닥에 놓고 마주르카의 손을 잡으며 짧지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네.”

## 15. Over the Rainbow

시장과 단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약 2주일 후,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아리카시의 대표적인 거리 9월 18일 거리(18 de Septiembre)와 '5월 1일 거리(21 de Mayo)'는 대체적으로 한산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시원한 빗줄기로 오후의 먼지들을 씻어내고 있었지만 아리카의 단 한 곳만은 동굴보다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약 5분전 보나파치오 시장이 아리카시의 경제, 산업분야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시작하며 던진 단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리카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곳은 아리카 시청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아리카 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모인 그 곳엔 조용하지만 팽팽한 침묵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한 노신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시장, 젊다는 건 말이오. 물론 좋은 것이라네. 거침없고 저돌적이며 망설임이 없지. 하지만 시장, 내가 봐온 대개의 젊은이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아나?”

보나파치오 시장이 별 말이 없이 가만히 노신사를 바라보자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 뚜벅 회의 탁자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건 책임감이네.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만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은 실패에 대한 책임에 전혀 무관심하더라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

보나파치오 시장은 비서관 돌로레스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준비시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저의 성공을 위해 이 계획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리카 시와 아리카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저를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이번에 이 계획을 일정대로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을 걸던 노신사, <21세기 발전위원회>와 상공회의소 소장인 마누엘 로하스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보나파치오 시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리카 시를 위한 계획이 기껏 문화도시 건설인가? 지금까지 우리 21세기 위원회에서 아리카의 공업화를 위해 세운 공장들, 기업들, 그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됐고 일자리를 위해 아리카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아리카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장이 추진한다는 일이 지금 문화도시라고 했나?”

노신사 마누엘 로하스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구가 늘고 덩어리만 커지는 것이 도시인가? 단지 잘 먹고 잘사는 것? 이보게 시장,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긴 전쟁 끝에 버려지고 낙후되었던 이 아리카가 이만큼 다시 일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자네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아리카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좌절에서 일어나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했던 우리가 늙었네. 가뭄에 땅 갈라지듯 이렇게 깊게 패인 주름만 남았네. 그런데 그 토대를 짓밟고 문화라니?”

마누엘 로하스는 금방이라도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칠 듯이 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뼈 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엔, 이 아리카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고 있어. 자네가 채 태어나기 전부터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사를 조이고 기름칠을 하던 우리들의 꿈이, 희망이 아직 살아있단 말일세. 시장, 정말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는가? 희망이 사라진 늙은이, 꿈을 잃어버린 늙은이란 말일세. 자넨 지금 우리를, 우리의 꿈을 문화라는 화려한 포장으로 덮어 저기 사막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단 말일세.”

회의장은 마치 용광로 속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시장에 대한 불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공청회는 언제 한 거야?”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모아놓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불러 놓고 북 치고 장구 친 거지 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단시키고 가까운 예산, 그거 우리 시민들의 돈이잖아. 그걸 제대로 쓰게 해야지.”

“회장님 이 안건은 수 십 차례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이미 시민들의 많은 찬성을 얻고...”

돌로레스가 말을 막은 것은 마누엘 로하스의 호통소리였습니다. 제일 뒷줄 로드리게스 단장과 알바노 그리고 몇몇 스타트(Start)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도대체 그만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상공회의소가 빠진 공청회는 인정할 수가 없네! 시장... 이제 그만 하고 아리카에 자동차공업부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세우게. 그래야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아닌 젊은이들로 넘쳐날 새로운 아리카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보나파치오 시장은 로하스를 향해 고개를 한 번 숙이고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하스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저를 시장이 아닌 한 젊은이, 영국 최고의 MBA를 공부하고 수많은 기업과 도시들을 컨설팅하면서 배운 살아있는 지식을 내 고향 아리카 발전을 위해 쓰고 싶은 한 젊은이의 말로서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뒤로 스크린이 내려오고 회의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화면엔 아리카 시의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여러 학자들은 단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한 학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빈슨(W. A. Robinson)은 도시를 문화 창조의 중심축면에서 예술과 문학 그리고 과학의 발상지로서 자유와 해방의 힘이 발생하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리카의 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리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엔 영국과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쇠락해가던 공업도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화의 폐해로 인한 도시 공동화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락으로 관련된 항만시설이나 공업단지들이 동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도시가 삶에서 동떨어진 박제화 경향까지 보였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로 바로 문화, 문화라는 상품을 찾아내었습니다.”

스크린엔 솔브레로 언덕과 사그라도 언덕의 고대 지리문자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이라를 소장하고 있는 미겔 데 이자과 고고학 박물관과 그리고 아리카 구릉과 리세라 해변에 있는 호텔들과 콜론광장을 중심으로 한 민속 거리들이 분할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리카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천혜의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를 둘러

보아도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고 고대문명과 현대문명이 상생하는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아리카의 문화는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개발하고 펴뜨려야 할 미래입니다. 좀 더 경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문화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 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나파치오 시장은 자리에서 걸어 나오며 스크린을 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솔브레로 언덕과 사그라도 언덕 그리고 미겔 데 이자파 박물관을 이어 고대 안데스 문명을 복원 개발하여 ‘아리카 고대의 등불’을 건설하여 많은 외국인들에게 아리카의 찬란한 역사를 알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메랄드빛 푸른 태평양을 배경으로 미술관 야외음악당 서커스단을 운영하여 현재 아리카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외국의 우수한 예술가나 작품 전시, 공연을 활성화 시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숨 쉬는 아리카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 높이가 높지 않은 그래서 쉽게 발길이 닿는 관광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정책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그중에 스페인의 빌바오가 나타나더니 구겐하임 미술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같은 해안도시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한때 빌바오는 스페인의 공업도시로 철강 조선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황을 거치며 도시는 황폐화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배워야 할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그 탈바꿈의 해답은 바로 문화, 구겐하임 미술관이었습니다. 물론 단지 미술관 하나의 건립이 이 도시를 바꾼 건 아닙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노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문화도시에 걸 맞는 변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 빌바오가 이루어낸 경제적 효과는 720억 페세타...우리 돈으로 약 2,150억 페소입니다.”

보나파치오 시장은 스크린을 끄고 좌중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업단지의 유치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환경도 보전하고 그보다 더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술관 박물관 음악당 등을 연결하려면 공항, 항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아리카 주변 지방관의 연계를 통한 균등 발전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은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시민의 가슴에 아리카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장으로서의 저의 인기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실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침묵에서 수근거림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신사 마누엘 로하스 아리카 상공회의소 회장도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를 한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백번을 양보한다고 쳐도 시장... 서커스단이 아리카의 발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미술관 박물관 그래, 좋네. 좋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리카의 해변을 배경으로 기껏 광대놀이 하나 하고 앉아 있을 작정인가?”

“하지만 광대는 울고 웃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광대는 그러한 시민들을 대변하기에 가장 친숙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드아이 서커스단이 우리 아리카시의 광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들이 그저 떠돌이 서커스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객이 줄자 스스로를 담금질 하면서 발전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기획안은 ‘매직서커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어 냈고 이는 아리카를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커스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집단'으로서 이 아리카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을 끝낸 보나파치오 시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훑치며 깊은 숨을 뱉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전부 보여드렸습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하스 마누엘도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 서커스단의 기획을 받아들인 것은 지금 보시게 될 한 편의 영상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다분히 감상적인 결론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 사람이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마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마술이 여러분 또한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갑자기 회의실의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비추는 하얀 빛만이 보이는 가운데 한 소녀가 연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르카..에요... 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워하는 사람 같아요. 음.. 저는 이 마술을 배울 때 무척 행복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보실 걸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소원이 있는데요. 나중에 할아버지랑 같이 햄버거를 같이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애들도 그러는데 저는 못해 봤거든요.”

마주르카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자 스크린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오래 되었지만 기쁨이 있어 보이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동색의 커다란 책상이 있는 서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서재의 문이 열리고 양증맞은 작은 발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발은 종종거리며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밑의 작은 발은 바닥에서 떨어져 의자에서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의 손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하얀 도화지위에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수염이 길다랗고 지팡이를 든 어른과 아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연필을 놓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엄마와 아빠가 없었어요. 대신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걸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손은 그 그림을 일으켜 세우듯이 끄집어 당겼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린 어른 그림이 꿈틀거리며 도화지위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따라 책상 위를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걸었어요. 이렇게요.”

아이의 손이 아까와 같은 동작을 하자 그림속의 아이는 기지개를 켜듯이 일어나 아이의 손을 따라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그림은 아이 그림의 두발 정도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두발 정도 앞에서 걸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따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앞만 보고 걸으셨으니 까요.”

그림 속의 아이는 지쳤는지 그만 바닥에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할아버지를 보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미웠어요. 제 손만 잡아주셨으면 같이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화면은 아이의 손을 따라 올라가 눈물이 그렇그렇 맺힌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는 마주르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화면에 빠져들고 있었을 때 마누엘 로하스는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바꿔 잡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주르카는 그림속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림 속의 아이는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졌던 할아버지가 아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앞에 선 할아버지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지팡이를 놓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아이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할아버지의 등에 업혔습니다. 아이를 업은 할아버지의 걸음이 천천히 화면에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등에서 나던 냄새를 기억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숨소리도 기억나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 뒤로 흐르던 땀도 기억나요. 할아버지는 한손으로는 저를 업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셨어요. 힘이 들면 지팡이를 짚은 손을 바꾸고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던 그림이 갑자기 멈추고 마주르카는 책상에 턱을 괴고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할아버지가 저를 업어주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요... 요즘들어 할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주시지 않아요.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주르카는 그림 가까이 얼굴을 대고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림의 할아버지는 아이를 내려놓고 그림의 아이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등을 돌려 할아버지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망설이자 그림의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아이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림의 아이는 할아버지를 업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할아버지를 업을 만큼 컸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모르세요. 지금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걸었던 것 보다 100만 배는 더 제가 업고 걸어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할아버지 저에게 등을 주세요. 저는 마주르카, 할아버지의 손녀, 벌써 열 살이 넘었는 걸요.”

그림속의 아이는 할아버지를 업고 천천히 화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화면엔 그림이 떨어져 나간 도화지와 마주르카만 남았습니다. 마주르카는 정면을 보고 세상 무엇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은 더 밝게 더 밝게 사라져 갔습니다.

회의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장은 발걸음 소리만 뚜벅뚜벅 들려왔습니다. 스크린 앞에선 시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 그쳤는지 바깥엔 비가 내리지 않고 조금씩 하늘은 개이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이 한 명이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전 오드 아이 서커스단의 마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처럼 미술관이나 박물관, 음악당에도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도입할 것입니다. 마누엘 로하스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저는 아리카를 찾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아리카를 만나고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 다시 더 많은 사람들과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망설이듯, 조심스럽게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대된 문화계 인사들의 손에서 나온 박수였지만 상공회의소 사람들 역시 그들의 눈빛에서 긍정과 행복의 표정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을 때 마누엘 로하스가 시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 손으로 잡고 있던 지팡이의 손을 바꾸고 시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고약한 사람이구만. 이 늙은이의 손녀를 이용하다니. 사실, 자네의 계획이 전부 실패는 않았다네. 다만 우리 늙은이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닌가하고 섭섭했었네.”

시장은 로하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회장님, 공업단지 역시 저의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사막, 전 그걸 황무지로 두지 않겠습니다. 공업단지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고맙네. 비가 그쳤구만.”

회의장 바깥 건물 사이로 무지개가 걸려있었습니다.

“시장, 아니, 젊은이, 무지개를 쫓지 말고 무지개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마주르카가 들어와 마누엘 로하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로하스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주르카, 내 손녀야, 자,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꾸나. 그런데 말이야, 햄버거는 쉬운데, 앵갯찌는 어떻게 가야하지? 정말이지 오드아이 서커스단에 분홍 돌고래를 만들어 달라고 이 할아버지도 특별히 부탁을 해야 겠구나.”

회의장내 사람들이 비로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끝에 서로를 끌어안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단장과 알바노였습니다.

.....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쩌면 마술은 마술사가 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긴 이 사람아, 우린 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거쳐 드디어 매직서커스를 무대에 올렸지.”

“드디어 매직서커스의 시작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직 서커스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의 ‘매직’을 경험했지. 성경 말씀 중에 서라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서커스단과 회원들 간의 단순한 친교의 개념이 아니었네. 인간적인 애정까지 결합된 완전한 의미의 ‘교회’, 혹은 ‘진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중요한 하나의 계기였으니까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 그러시죠?”

알바노가 주머니 속의 동전 5개를 한꺼번에 꺼내더니 한손에 쥐고 찰랑거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드아이서커스단의 재정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코끼리 네리아가 죽은 뒤로 계속해서 수익은 줄어들었고, 오피니언들을 참여시킨 직후 반짝 하고 관객이 늘긴 했지만 또다시 지속적으로 관객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는 새로운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 공연 자체 보다는 커뮤니티 형성에 더욱 신경을 쓰느라고 서커스단의 재정은 바닥이 났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오로지 식사를 담당하는 우르슬라 밖이에요. 단장님도 모르셨더라구요.”

단장이 인상을 약간 찡그린 채 양손으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부분은 미안하네. 나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우르슬라 그 녀석이 좀 더 일찍 말해줬더라면 나도 뭔가 대책을...”

“어느 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먹을거리가 없었죠. 우르슬라는 우르슬라 대로 모두들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었죠.”

알바노가 5개의 동전을 휘리릭 하늘로 던지더니 그것을 되받아 주머니 속으로 넣어버리곤, 빈 양손 짝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아. 그랬지”

이제까지 뭔가 민망했던지 단장이 나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커스단 천막 앞에 커다란 몇 개의 박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속에는 사과, 치즈, 잼, 우유가 한 가득 들어있었네. 그리고 그곳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어.

「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하더라 」 (요한복음 6장 10절~14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오드아이 서커스 단원 여러분 !

바로 스타트(Start) 회원들 중 한명인 구스만씨가 우연히 우리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미 아리카시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회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를 도왔던 거네.”

페레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진정한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처음에는 단순히 ‘서커스단-주민’들의 관계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알바노는 여전히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서커스 공연장으로 가실까요?”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넷.

### “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는 커뮤니티이다 ”

하나님의 성공법칙에서 ‘교회’의 존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에 행해지는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나와 똑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쉼터는 열정을 표현하는 공간이자 배움의 장이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한 전초기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확인은 혼자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신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인 애정과 친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겨난다면, 그 커뮤니티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이고 그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바는 반드시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 [ 포인트 ]

마케팅적 의미에서 브랜드 커뮤니티는 브랜드 옹호자들의 쉼터입니다. 커뮤니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구매자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네트워크이며 이는 구매자들 간의 경험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판매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장 손쉽고 효율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다섯.

### “ 성경을 확산시켜라 ”

구매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희망은 모든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일 것이다.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제품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막연히 구매자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판매자에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16.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매일 보는 공연장인데도 로드리게스 단장은 애정이 듬뿍 어린 눈으로 공연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실 텐데 그렇게 좋으십니까?”

“좋지. 그럼. 난 말일세. 사람들이 서커스하면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혹은 짐시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게 싫었네. 우리라고 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해졌으니 수십 년 떠돌아 온 나 말고 누가 그 감격을 알 수가 있겠나?”

페레는 단장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감히 그 마음을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그렇게 역사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지.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이었는데. 이렇게 늙어버린 나였지만 그날은 마치 처음 무대에 서는 초보 광대처럼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네.”

로드리게스 단장은 벌써 붉어진 눈시울을 하고 페레를 보았습니다. 웬지 페레도 가슴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페레는 텅 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아리카의 전설 : 비밀의 호수와 요정

#### 제 1장

공연장은 달이 없는 밤처럼 캄캄했습니다. 관객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한 눈으로 모두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가로지르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비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건 아닌데 우리는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우리를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잊어버리기 전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아있

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의 신호에 맞춰 눈을 뜨면 잊고 있던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대는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무대는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의 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무대 위를 신나게 달리며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마치 피터팬처럼 초록빛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무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를 도는 소년의 머리 위로 종이비행기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비행기들은 소년의 주위로 원을 그리듯이 감싸더니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에 갇힌 소년과 자전거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년은 눈을 감고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정말 비밀인데요.

언덕을 넘고 저기 숲으로 들어가면 거기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별이 없는 날,

호숫가에는 일곱 송이 수선화가 핀답니다.

일곱 송이 수선화를 꺾어 호수에 던지면

손가락에 풀꽃 반지를 감은 소녀가 나타나 볼에 키스를 해준대요.

저는 그 소녀를 만나러 갈 거랍니다.

소년의 자전거에 한 마리 파랑새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무대 밑이 소란스러운가 싶더니 커다란 구두를 신은 난쟁이가 나타나 소년을 불렀습니다.

외발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난쟁이의 주변을 정신없게 돌았습니다.

“어서 내려와. 너 쳐다보다가 목이 늘어나겠다. 어지러워 저리가.”

소년은 부드럽게 회전을 하며 무대로 내려왔습니다.

“안녕, 모모꼬?”

“그래 안녕. 그래서 정말 그 소녀를 찾아 가겠다는 거야? 그럼 그전에 마법사 네루를 먼저 만나보는 게 어때? 네루라면 그 호수를 찾아가는 길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건 좋은 생각인데?”

소년은 난쟁이 모모꼬의 손을 잡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파랑새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머지 외발자전거들도 무대에서 사라지자 다시 무대는 동굴 속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5개의 붉은 불길의 빛이 솟았습니다. 마법사 네루의 지팡이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그 불길들을 스쳐 지나가자 그것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파란색 원형의 빛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마법사는 그것을 서서히 공중으로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솟은 빛 덩어리는 어느덧 공중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빛을 뚫고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소년과 난쟁이 모모꼬였습니다.

“네루,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법사는 입을 손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전하던 파란색 빛 덩어리는 순간 다섯 조각으로 나뉘더니 다시 색깔이 바뀌어 붉은 불길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탄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불꽃이 모두 사라지자 마법사 네루는 흡족한 듯이 웃었습니다.

“네루, 풀꽃 반지를 감은 소녀를 만날 수 있을까?”

마법사 네루는 웃으며 붉은 리본이 감긴 오래된 종이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좋아. 까짓 비밀 내가 풀면 되지. 고마워 네루, 내가 요정을 데리고 금방 올 테니까 그때 봐.”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 사라졌습니다.

## 제 2장

무대가 천천히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심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무대바닥에서부터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떨림은 점점 커지고 놀랍게도 무대에서 커다란 무엇이 무대를 꽉 채우며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무언은 이윽고 움직임을 멈추고 무대는 천천히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날카로운 빛이 무대 뒤에서 무대 중앙으로 날아와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원은 거대한 무언의 이 곳 저 곳을 유영하듯 돌아다녔습니다. 관객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무언은 수족관이었고 그 안에는 조명을 받은 물이 부서지듯 반짝거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대 위 네 방향에서 일제히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대는 거대한 아쿠아리움 이었습니다. 소녀는 관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방의 공중에서 긴 널빤지가 다이빙대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위에 4명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잠시 호흡을 고르고 아름답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물에 닿는가 싶더니, 그렇게 물보라가 이는 것 같더니 물속으로 들어간 그들이 모두 분홍색 돌고래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니, 분홍색 돌고래들은 소녀의 곁으로 모여들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부터 소녀의 곁으로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색으로 변하는 조명은 물고기들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물고기 한 마리를 마치 물속에서 떠올리듯이 손바닥에 담았습니다. 소녀의 손바닥에 있던 물고기는 잠시 소녀를 보다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소녀는 물고기를 보더니 물위로 솟아 아쿠아리움의 한쪽 끝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네.

숲의 가장자리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소년이 나타나

호수의 비밀을 풀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전설이 있었네.

푸른 자전거를 타는 소년이 나타나

소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숲의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사랑의 전설이 있었네.

관객들은 마치 상상속의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녀는 분홍 돌고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대는 점점 밝아져 이제는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내었습니다. 물 위로 솟아오른 바위 위에는 세 명의 인어가 앉아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고 물속에는 여러 빛깔의 물고기들이 마치 춤을 추듯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서커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들과 기예단이 나와 재미있고 멋진 묘기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던 사람들은 모두 한 방 맞은 것처럼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분홍 돌고래가 소녀를 태우고 물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물보라가 무대 위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소녀는 돌고래의 등에서 내려 바위에 앉았습니다. 세 명의 인어가 소녀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네펬, 불쌍한 것,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아니에요. 밤이 길면 꿈도 길잖아요. 전 길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에요.”

무대는 다시 아스라이 어두워져갔습니다.

### 제 3장

팔을 베고 누운 소년이 보였습니다. 소년의 코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의 코에서 나오는 작은 콧방울이 풍선만큼 점점 커지더니 코에서 떨어져 나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 개, 다시 한 개, 관객들의 킁킁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콧방울은 몇 초 정도 공중을 떠돌다가 이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터진 콧방울은 노란 나비가 되어 무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그때 무대의 끝에서 사슴을 타고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그 반대편에선 아기 코끼리, 호랑이, 사자, 원숭이 그리고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소년을 깨웠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호수의 요정을 만나려고 왔는데 벌써 며칠째 이곳을 헤매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네루의 지도를 보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호수의 요정을 찾으러 오셨군요. 호수의 요정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밀을 풀어야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밀을 풀기 위해서라도 호수를 찾아야 하는데..”

“나를 풀면 호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호수의 비밀이니까요.”

소년은 놀란 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비밀을 풀 준비가 되었나요? 자, 나의 비밀입니다. 잘 들으세요.”

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새는 날개가 아주 작아서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새들은 모두 그 날개가 작은 새 곁을 떠나버렸어요.

너는 우리랑 같은 곳을 날 수가 없잖아.

소년이여 새의 비밀을 풀어주세요.

저기, 키 작은 나무 가지 끝에 혼자 앉아 있는 저 새,

날개가 작은 새는 지금 슬플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새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작은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소녀에게 걸어온 소년이 작은 새를 소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슬플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슬퍼요. 혼자서 어떻게...”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년의 눈물이 소녀의 손바닥에 닿자 소녀의 손바닥에서 눈부신 빛이 굉음과 함께 솟아나며 무대는 거대한 섬광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의 소녀도 동물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소년의 손엔 일곱 송이 수선화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

#### 4장

무대 밑에서 다시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고래도 소녀도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인어는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분홍돌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아쿠아리움 위를 자전거를 타고 날았습니다. 소년이 자전거에서 일어나 잠시 호흡을 가다듬더니 물속으로 점프하자 갑자기 분홍돌고래가 수면을 박차고 솟아올라 소년을 태우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을 태운 분홍돌고래가 헤엄치자 많은 물고기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분홍돌고래는 소년을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요정에게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나는 날개가 아주 작은 새, 당신의 꿈이랍니다.”

요정은 소년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을 함께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 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원형의 빛만이 무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원형의 빛이 여기저기를 비추면 헤엄치는 소년과 요정이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을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직 서커스는 다시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주문입니다.”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

페레는 누군가 자기의 어깨를 두드리는 걸 느끼고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바노가 페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의 공연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모습,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 하지만 무대 위에서 우리는 관객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

로드리게스 단장의 말을 받아 알바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인사처럼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을 말하고 다녔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마치 세상이 온통 우리의 주문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굉장한 기분이었지요.”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짐작할 수가 없군요. 하하.”

알바노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안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휴대용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건 성경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서커스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페레는 여기에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 뚫어지게 알바노를 쳐다보았습니다. 알바노는 페레를 관객석에 앉히고는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종이가 없던 당시에는 양한마리에서 고작 두 페이지 밖에 나오지 않는 양피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귀족이나 큰 교회에서도 한 권 정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었겠죠.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발명한 인쇄기 덕분에 성경은 대중화 되고 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싶으시죠?”

페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페레씨, 우리 오드아이 서커스단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리크레 마리크레 실라스레밋?”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화된 성경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확산 콘텐츠’라고 합니다. 브랜드나 아이덴티티 그리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은 사람과 미디어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이렇게 확산 콘텐츠라는 형태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페레씨는 우리 서커스단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주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문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리카 시민들에게 퍼져나간 우리 서커스단의 ‘확산 콘텐츠’였습니다.”

알바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주문은 우리 서커스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공연을 본 관객이 주문을 모방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복제하고.... 비단 주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서커스단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마술과 서커스 동영상들 그리고 그걸 보고 회원들이 올린 또 다른 동영상들 그게 모두 확산 콘텐츠의 역할을 했습니다. 전 그 현상을 보고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확산 콘텐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레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알바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은빛으로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바노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자 페레는 십자가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십자가의 오른쪽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귀에 익숙한 주문이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연에 쓰인 배경음악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처럼 서커스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사람들 간에 확산이 될 수 있는 콘텐츠와 이를 담아낼 그릇의 역할을 하는 노래, 춤, 주문, 책의 형태로 만들어지는군요? 이렇게 제가 오드아이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알바노는 동의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도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MP3 플레이어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MP3 플레이어가 그렇게 확산된 이유가 무얼까요?”

“그건 아마도 공감감이 아닐까요? 감동의 공유,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맞는 이야기나 사진, 음악, 그림 등은 소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점을 착안해서 MP3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주파수가 맞았다고나 할까요. 라디오처럼..하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MP3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의 공연을 보지 못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역시 이를 접하고는 우리에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언젠간 이곳 아리카에 여행을 온다면 반드시 우리 공연을 보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하죠.”

페레는 멀리서 단장이 무대 바닥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줌고 닦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알바노가 얼른 뛰어가서 단장의 옆에 앉아 같이 무대바닥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줌고 굽은 어깨를 가진 두 사람이 맞대고 있는 무릎, 페레는 어쩌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온 몸을 던져 연기 하는 두 명의 광대, 뻘에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하나님의 성공 법칙 다섯.

### “ 성경을 확산시켜라 ”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나가 공감하며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단일 콘텐츠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한권의 책’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자 용기이고, 좌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이고, 또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의 고리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읽혀지고 해석되고 전파되는 아주 강력한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글, 영상, 음악, 춤, 구호, 철학, 비전, 매너 또는 의식하지 않는 행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주기도문, 찬송가, 십계명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전파되는 것처럼,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는 복제(모방)가 원활하여야 하며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 포인트 ]

2002 한일 월드컵을 대했던 전 세계 인구는 ‘한국 축구’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계 4강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축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논리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밝게 웃으며, 두 손을 들고, ‘대한민국 ~ 짹짹, 짹짹’을 따라합니다.

기업이 구매자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고 싶다면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끊임없이 기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에필로그

오늘은 아리카시의 축제일, 바로 ‘백만 번째 관광객의 날(The Day of One Million Visitor)’입니다. 아리카시가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낸 후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년 만인 오늘은 바로 백만 번째 관광객이 아리카시를 찾는 날입니다. 로드리게스 단장과 단원들, 보나파치오 시장, 원로인사인 로하스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아리카시의 관문인 국제 터미널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이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마음껏 즐기려는 듯 얼굴에는 들뜸과 미소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개구쟁이 꼬마들은 벌써부터 저 앞으로 나가 연이어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숫자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웅성거리고 있을 때, 드디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국제 터미널에 찌렁찌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리카 시민 여러분, 드디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여기 이 분이 9백99만 9천 9백90 번째 손님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명이 남았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외쳐봅시다.”

모든 시민들은 사회자의 말에 따라 우렁차게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인!”

“에잇!”

자신이 백만번째가 되지 못한 관광객들은 무척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래도 재미 있다는 듯이 그 모든 순간들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단 3명이 남았습니다.

“쓰리!”

“투!”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민들이 동시에 “One Million!”을 외쳤고 광파레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국제 터미널을 떠나갈 듯 만들면서 드디어 백만번째 관광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운 얼굴을 하면서도 두손을 활짝들어 시민들의 축하 인사에 화답했습니다. 백만번째 관광객, 그것은 아리카시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었고, 모두들 그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을 때 한쪽에 마련된 파티장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아리카시를 찾은 페레의 모습도 보였고, 이제는 좀 더 키가 자란 마주르카와 사뭇 소년티를 벗은 미구엘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알바노가 페레에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간, 카사콘차는 좀 드셨나요?”

“이번 아리카시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또다시 상을 탔을 때, 아, 정말이지 그 날 저녁에는 카사콘차가 너무도 그리웠지.”

“그래도 대상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하셨겠어요?”

“하지만 괜찮아. 대상이야 한번 탔으니 충분해. 하지만 나는 상보다 더 훌륭한 것을 얻었으니까. 바로 자네가 알려준 다섯 가지의 하나님 성공법칙 말일세. 나는 그때 배운 걸 통해 여러 강연에 나가고 있지. 처음에는 ‘작가와 대화’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기업에 불러다니며 오드아이 서커스단과 아리카시의 성공 스토리를 알리고 있다네.”

알바노가 들고 있던 와인을 맛있게 들이켰습니다. 페레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아예 그걸 달달 외우고 있다니까. ▶새로운 미디어인 ‘사람’에게 주목하라, ▶오피리언 리더를 뽑아라, ▶동등한 입장에서 있는 ‘예수’를 찾아라, ▶커뮤니티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 확산시켜라. 자네도 물론 알겠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불멸의 법칙은 어느 조직이나 적용이 가능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되어오는 방법이 아니겠나! 앞으로 또 2000년 간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하.”

알바노와 페레는 꺾꺾거리며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축제일의 행사를 마친 로드리게스 단장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페레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나파치오 사장 역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 끝 -